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입장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연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명목 하에 여성노동자에게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고, 파견노동, 하청, 소사장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많은 수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임신 출산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으며 강원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학이나 학기 중에 짬짬히 시간을 내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수진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취업하기도 한다.
본교 학생 이수진 역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파크에 입사하였고 성실히 일하던 중 성폭력을 당하였다.

하지만 이수진 성폭력 사건 이후 임파크 회사에서 보여준 행동은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내 직원이 당한 불미스러운 일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피해자를 협박한 회사측의 태도는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우리 학교 학생이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일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 더군다나 본교에도 주차관리로 들어와 있는 임파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임파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임파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둘째,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서 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요구한다.
- 셋째,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이수진에게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
- 넷째, 피해자 이수진이 복직을 요청할 시 언제든지 수락하라.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는 경기대학교 4500여학우의 대표기구로서,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당하는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본교 학생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임파크도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국경기 17대 여/우/사/이 총여학생회-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입장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학이나 학기 중에 짬짬히 시간을 내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수진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취업하기도 한다.
본교 학생 이수진 역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파크에 입사하였고 성실히 일하던 중 성폭력을 당하였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유린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하던 비정규직 여대생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일하고 있던 '이춘택병원'과 피해학생이 일하던 '임파크-이춘택병원현장'은 상호거래처였다. 어떻게 보면 '이춘택병원'은 피해학생이 근무하는 '이춘택병원현장'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8월 19일 '이춘택병원현장' 소장이 주선해서 만들어진 술자리는 일종의 접대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잘못된 회사 회식문화의 관행이다.
이런 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인식의 산물이기도 하다.

어찌보면 누이 같기도 할 피해학생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뺏속깊이 반성해도 부족할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겪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우리 학교 학생이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일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수진의 인격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가해자 이성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가해자 이성진은 피해자 이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 둘째, 피해자 이수진이 당한 성폭력에 대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차원에서 물질적인 보상하라.
- 셋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구국경기 17대 여/우/사/이 총여학생회-

** 가해자 이성진은 10월 8일까지 답변을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로 보내주길 바랍니다.